

Julia Fischer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

다양한 재능을 두루 겸비한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율리아 피셔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뿐만 아니라 피아니스트, 실내악 연주자, 바이올린 강사로서도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난 율리아 피셔는 3세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어머니 비에라 피셔의 권유로 몇 달 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9세의 나이로 뮌헨 음악 아카데미에 최연소 입학해 명망 높은 바이올린 교수 아나 추마첸코의 제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학업을 이어나갔다. 율리아 피셔는 12세 때인 1995년, 예후디 메뉴힌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하며 이른 나이에 음악가로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고, 그 후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리카르도 무티, 예사 페카 살로넨, 유리 테미르카노

프, 프란츠 벨저 뢰스트 등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섰다.

율리아 피셔는 2008년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페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데뷔 무대를 갖기도 했다. 1부에서는 생상스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을, 2부에서는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며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로서의 역량을 한 연주회에서 동시에 선보여 관객의 뜨거운 갈채와 무결점의 연주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율리아 피셔는 2011년 알렉산더 시트코베츠키, 닐스 뮌케마이어, 벤자민 니페네거와 함께 현악사중주단을 창단했으며, 바쁜 연주 일정 속에서도 멤버들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실내악 무대에 꾸준히 오르며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 Felix Broede